

우리문화

2011.11 Vol. 232 November

제9회

국회 시낭송의 밤



2011. 11 Vol. 232 November

Contents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
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
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
장), 김종(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
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
니다.

02 연합회 소식 2011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2011 문화원의 날

06 2011 문화의 날 기념식

08 댕동 반갑습니다 대전 대덕문화원

12 문화원 소식 논산문화원

14 안동문화원

16 원장기고 사천문화원

17 사무국장 릴레이 김천문화원

20 객원기자단 소식 평창문화원

22 문화원 zoom 그림으로 보는 통영

26 문화원 소식 부산 사하문화원 개원

28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돋보기

32 우리문화 소식

댕동

2011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2011 문화원의 날



2011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 전경



인천 부천문화원의 사물놀이 공연

전국 지방문화원의 화합과 소통의 장

지난 10월 10일(월)부터 11일(화)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1 전국 지방문화원장 세미나와 2011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첫 날 개회식의 초청강의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의 '문화세기 문화전략', 리종일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의 '21세기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역할-다문화 가치의 인정과 디아스포라(Diaspora)의 수용'이 이어졌다. 이어진 임시총회에서는 연합회 정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만찬으로 첫날을 마무리 지었다.

둘째 날은 지기룡 변호사(해마루 법무법인)의 '지방문화원 제도와 법규' 강의와 우수문화원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08년 대한민국문화원상 대상인 강릉문화원과 09년 대한민국문화원상 대상 문경문화원이 맡아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질의 시간에는 원장들간의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갔다.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종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후원하는 '2011 전국문화원의 날 기념식'은 11일(화)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지방문화원장(228여명)등 문화원 가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문화부장관 유공자 표창, 대한민국문화원상 시상, 제26회 전국향토문

화공모전 시상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동대문문화원의 왕언니클럽, 인천 부천문화원의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졌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 창조, 발전시키는 중심역할 수행을 발표했다.

'문화원의 날'은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문화원 가족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에 제정, 2008년부터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6일 제주문화원에서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와의 MOU 체결"과 관련, 신상범 제주문화원장의 발언으로 전국 12만 여명의 문화원 가족이 투표 동참을 결의해 현장에서 전화투표에 참여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1947년 강화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별로 꾸준히 설립되어 현재 6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229개 시·군·구지역에 설치되어 활동 중이며, 지방문화원의 고유사업이외에도 최근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고령화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의 초청강의
2.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3.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4. 리종일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5.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고창식 평창문화원장
6.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관해 발언 중인 신상범 제주문화원장
7. 서울 동대문 문화원 '월간니 클럽'의 공연

▶ 유공자표창 시상내역

소 속	성 명	유공내용	상 격
대구 달성문화원	전상호	재직기간: 8년(2003.02.27~2011.02.24) 주요공적: 회원 500여명 확보, 문화학교 수료생 530여명 등 지역문화 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광주 남구문화원	이종일	재직기간: 9.8개월(2001.07.01~2011.03.23) 주요공적: 광주남구문화원 개원, 향토사 및 주민밀착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문화 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경기 수원문화원	유병현	재직기간: 7년(2003.12.19~2010.12.31) 주요공적: 문화사료 연구·편찬, 각종 민속 문화제 및 축제 주관 등 지역문화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강원 동해문화원	김형순	재직기간: 8년(2003.04.17~2011.04.16) 주요공적: 동해시 주요축제 및 행사 개최, 사회문화예술교육공모사업 및 학교연계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지역문화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남 나주문화원	정경진	재직기간: 8년(2003.02.01~2011.01.31) 주요공적: 향토사의 연구, 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 등 지역문화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경북 구미문화원	김교승	재직기간: 8년(2003.04.01~2011.03.31) 주요공적: 문화학교실시 및 시민문화강좌, 농악단 운영 등 지역교유사업 전개 등 지역문화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경남 하동문화원	정연가	재직기간: 8년(2003.04.01~2011.03.31) 주요공적: 문화원 회원확충, 향토사발굴, 전통의례축문집 발간, 하동야생초문화축제 개최 등 지역문화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2011 대한민국문화원상 시상내역 I 문화원 종합경영 부문

분 야	구 분	대 상	지 역	선정 단체(개인)	상 격
종합경영 부문	대 상	1	대전	대덕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지역별	구(광역시)	인천	남구학산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상
	우수상	시	경북	안동문화원	"
		군	전남	담양문화원	"

개인 및 단체 부문

분 야	구 분	대 상	지 역	선정 단체(개인)	상 격
우수프로 그램 부문	축제 및 문화행사 부문	1	충남	내포축제(홍성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상
문화 창달 부문	창의활동 부문	1	경기	백영옥(하남문화원사무국장)	"
	문화협력 부문	1	경기	조억동(광주시장)	"
	고유문화개발 및 보급	2	서울	성동문화원	"
			경기	박준호(안양문화원사무국장)	"
	향토사발굴 및 조사연구	2	전북	임실문화원	"
			경북	영천문화원	"
	지역발전 위한 사회활동	1	경기	박진희(누리예술단단장)	"
	문화예술극대외교류	3	경기	시흥문화원	"
			경기	성남문화원	"
			경북	김천문화원	"

▶ 2011 지역문화경영과정 수상자

소 속	성 명	유공내용	상 격
강원동해문화원	조 연 섭	2011 지역문화경영과정 최우수 수료생 ※ 전문위원 6명 종합평가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제 26회 향토문화공모전 시상내역

구 분	응 모 작 명	상금(천원)	성 명(소속)	상 격
종합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 초기 피난과정-수직상체일기를 중심으로	3,500	이윤찬(정읍문화원 사무국장)	대 상(국무총리상)
논문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2,500	이종우/이규원(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조선중기 고형산 인물 탐구와 그의 위민행정 고찰	1,500	박순업(형성문화원 부원장)	우 수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지역사 연구모델 제시 -수원역사문화권의 현황과 연구 대안을 중심으로	1,000	이 원/이준봉/정은미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특 별 상 (국사편찬위원회장상)
자료	삼척지역 전통 사찰의 창건 설화와사명 변화 연구	2,500	김도현(강원도계여중 교사)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의 유래와 지명에 대한 고찰	1,500	이인호(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	우 수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콘텐츠	시간을 빛는 공간 -영양양조장	1,500	노현식/손지선/우정민/김현철/ 신헬렌/최두열(람관)	최우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우두에서 농악을 만나다	1,000	전혜리/송영섭/장시완/이슬기/홍성현 (강원대문화인류학과강원지역문화연구회)	우 수 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번외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의 문화지리적 특성	부상	최경원(해문고)이혜원(경기외고)	격 러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06 2011 문화의 날 기념식

복원된 강릉 관아에서
10.15. 열려

10월 15일 문화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마당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복원된

강릉 관아 내 특설 무대를 중심으로

강릉시 곳곳에서

'공감의 문화, 신명의 땅에서 만나다' 라는

주제 아래 성대하게 펼쳐졌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옥관,
장재찬(경기 양평)·정정희(충남 당진) 원장
화관 문화훈장

신명의 땅 강릉에서 공감의 문화 마당 진행

이번 문화의 날 기념식을 전후로 14일부터 16일까지 ▲공감, 동해 안에서 솟다 ▲ 공감, 신명으로 만나다 ▲ 공감, 새로운 교감으로라는 큰 주제로 문화의 날 본행사를 진행했다.

14일 금요일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축하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한국방송(KBS) 국악 관현악단 초청 공연 '국악, 신명을 노래하다'가 메인 행사장인 강릉 임영관 무대에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었다. 또한 16일에는 문화의 날을 맞아 지역 간 교류의 장으로 2012년 문화의 달 개최지인 서천군 초청 공연이 열렸다.

'문화의 날'인 15일 토요일에는 '문화난장 - 칠사당 거리의 재발견' 행사를 통해 오후 3시부터 구명중초등학교에서 한국은행 사거리까지의 거리가 시민들과 함께 호응하고 참여하는 구간으로 조성되었다. 거리 일대에서는 다양한 공연, 전시를 비롯하여 문화체험과 볼거리가 펼쳐져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문화난장이 펼쳐졌다.

오후 4시부터는 '공감과 신명'으로 풀어내는 문화의 달 메인 행사로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과 표창을 진행하는 '2011 문화의 날 기념식'과 강릉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제공연 '강릉 땅 사람들'이 열렸다.

문화훈장(20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상,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장관상, 8명) 시상식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의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을 고

취하고자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수훈자와 수상자는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공적 심의·추천과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문화훈장 서훈은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 이근배 등 5명이 은관문화훈장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홍숙호(석창) 등 3명이 보관문화훈장을, 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성판례(우향) 등 7명이 옥관문화훈장을, 도서관문화연구회 회장 조원호 등 5명이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원에서는 최충수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옥관, 장재찬(경기 양평)·정정희(충남 당진) 원장 화관 훈장을 받아 문화원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로 43회째가 되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대통령상은 한국반주음악연구소 소장 임현원 등 5명이 수상한다. 아울러 장래가 촉망되는 20~30대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하는 제19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연극부문 장영남 등 8명이 수상했다.

강릉은 이번 문화의 날 행사를 계기로 강릉지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 복원된 강릉 관아의 문화공간으로의 인식,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1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릉시립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사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1 문화의 날이 개최되는 강릉시의 경강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

텅 동, 반갑습니다

북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명산 계족산을 경계에 두는 대전의 대덕구. 지역의 변두리라고는 하나 오래 전 현형이 있던 자리니만큼 역사의 유래가 있어 회덕 동춘당(보물 209), 대덕계족산성(사적 355), 회덕 쌍청당(대전유형문화재 2), 옥류각(대전유형문화재 7)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이다. 대전의 북쪽통로에 위치한 대덕문화원을 들여다본다.

대덕에 피는 꽃, 문화원이 피우는 문화꽃

대덕문화원 이야기를 하자면 장동마을 이야기가 떠오른다.

‘장동은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7~80년대 대전에서 가장 놀기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었으며, 미군부대가 떠나간 뒤로는 도시 인근의 썰렁한 농촌 분위기였다가, 몇 년 전부터 계족산 휴양림과 황톳길 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마을과는 무관한 현실이다. 그래서 대덕문화원에서는 올 해 마을기업으로 장동계족산황톳길 게스트하우스를 쉬임없이 운영하게 되었고, 진행하며 장동영농조합을 만들어 영농조합이 본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문화원은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본지 229호 ‘장동이야기 꽃이 피다’ 내용 중)로 자리 잡았다. 장동마을의 사례는 일자리 창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 송성현 원장은 노인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르신문화학교 사업이 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이분들의 삶의 질,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층의 문화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





대 덕 구 문 예 회 관

大德文化院

윗줄 왼쪽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권태봉,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염영생, 시설팀장 노한성, 문예담당 김우경, 문화담당 박훈상, 문화문예팀장 김인숙, 대덕문화원장 송성현, 사무국장 임창웅, 총무팀장 홍순자



다. 결혼가정의 아이들에게 놀이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준다. 그것 뿐인가. 경로당 등 벽화 작업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수익창출에 이른다. 보람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셈이다.”

대덕에 피는 꽃, 문화원이 피우는 문화꽃인 셈이다.

문화원의 기둥은 우리 직원들

평생 공직 생활만 반듯하게 했던 송원장이다. 은퇴한 뒤 문화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원과 연을 맺게 되었다고.

“첫 취임 후 의욕은 앞서는데 예산이 적어 힘들었다. 이제 취임한지 5년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현재 지역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처음 80여명의 회원이 500여명으로 늘었다.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20여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사업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으로 ‘17세기 조선시대 큰선비 동춘당가 여성문화의 재발견’ 사업은 쉽게 보기 힘든 여성 축제의 하나로 이 지역의 특색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 문화원 직원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업을 따온다. 따오면 자기들만 비뺄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웃음. 말은 그렇지만 직원들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문화원이 안 그렇겠냐만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이 항상 고마울 뿐이다. 우리 문화원의 기둥이다.”

임창웅 국장은 각종 공모사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돌파구를 삼았다. 문화원 예산이라는 토끼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문화장터로써의 문화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도움이 되었다.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느끼게 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지역문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문화요, 가정문화인 것이다. 문화사업으로 인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 개인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문화원은 지역문화가 꽃피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의 놀이터로서 그것을 향유하는 모든 분들의, 이것이 대덕의 꿈이다. 가족들이 함께 하고 친구들이 함께 하고 문화의 존엄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다.”

2011 문화원의 날 문화원상 대상 수상

대덕문화원은 이번 문화원의 날 문화원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무국에서나 송원장이나 과분한 상을 주셨노라는 이야기가 앞선다.

“전국에 훌륭한 문화원이 참 많은데 대상이라니,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더욱 갖게 된다. 더 나아가고 향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우리는 우리 혼자 달리지 원치 않는다.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달리고 싶다.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지나다가도 괜히 한번 들려보게 되는 동네 사랑방, 사람이 넘치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한다.”

상에 연연하는 문화원, 거창하게 빛나는 문화원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문화원이라니, 그 꿈 소박하고, 또 대단하다.



문화원 둘러보기 | 논산문화원

조선시대로의 여행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행사

조선의 과거제 향시

10월 8일 오전 10시,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논산돈암서원에서 논산시가 주최하고 논산문화원이 주관하여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가 재현되었다. 향시 응시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가한 가운데 입덕문 앞에서는 황명선 논산시장, 이인제 국회의원, 송덕빈 충청남도의원, 류제협 논산문화원장, 박성기 한학자가 향시 개막 퍼포먼스가 있었다. 향시 성공과 논산의 화합을 이끄는 메시지를 흰 천 위에 대형 붓을 이용하여 오방색으로 서로 휘호를 남겼다.

전국에서 참가한 향시 응시자들은 녹명소에서 점수를 마치고, 유건과 도포를 착용한 뒤 향시장에 입문하였다. 목사 역할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은 조선시대 시관들을 앞세우고 입장하였다. 이어 목사는 '초등부는 사자소학, 중고등부는 격몽요결, 대학일반부는 논어에서 문제를 내라'는 시제를 하차한 뒤 개시타고 하였다.

응시자들은 한 시간 반에 걸쳐 정숙한 가운데 진지하게 시험에 임했다. 선비들이 과거제에 응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시관들은 타인과 작축을 하고, 응시자들은 한두 명씩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

건양대학교 김문준, 정정일 교수와 김기 한학자가 채점하는 동안 응도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가량 국악 관현악팀 '큰뎡어울'의 공연이 펼쳐졌다. 국악 실내악 연주와 판소리, 김미숙 씨의 태평무 등이 이어져 흥은 물론 전통 국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시관의 엄격한 감독과 정확한 채점 결과, 초등부 장원은 대전 동광초 6학년 한주인 학생이 충청남도 교육감상을 받았다. 중고등부 장원은 대전여고 1학년 김은희 학생이 충청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학일반부는 부산 부경대학을 휴학 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박민호씨(24세)가 논산시장상과 상금 70만을 차지하였다. 장원에게는 각각 교지가 전달되었으며 대학일반부 장원 박민호씨는 가마를 타고 장원급제 행렬로 많은 환호와 축하 박수를 받았다.



논산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조선시대 '향시'는 지방에서 실시하였고, 33명을 선발하여 합격자를 냈다. 이들은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고, 대과에 합격하면 비로소 벼슬로 나가는 관문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 향시는 충남에서는 유일하였고, 전국에서도 향시는 보기 드물다.

향시장을 찾은 많은 가족단위 시민과 관광객은 호패와 마패도 만들어 보고, 서당체험, 전통혼례 체험, 다도 등 조선시대에 온 듯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겼다. 특히 삼행시 백일장, '암행어사 출두야'는 많은 분들이 응하여 또 다른 과거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 향시장을 연쇄해 보면서 선조들의 모습을 엿보는 교육 현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향시는 공주목에서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었고,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 선생의 위패를 주벽으로 모신 유서 깊은 논산둔암서원에서 개최되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 행사를 통해서 선조들의 정신 문화를 본받고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논산의 유교 문화를 꽃피우는 단초가 되었다는 평이다. 대과에 비하면 향시에 대한 고문서나 논문은 거의 보기 드물다. 또한 이를 잘 알만 한 분도 만나기 어려웠다. 고증에서부터 난관은 있었지만 많은 가능성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특산물 축제가 일색인 논산에서 하나의 문화 축제로 승화될 가능성이 보인 본보기가 된 행사였다.

이준창 논산문화원 사무국장, 우리문화 객원기자



월사! 덜사! 안동차전놀이

일만여 관중과 함께 축제장을 후끈 달구다.

안동의 날, 그리고 안동차전놀이

10월 3일 안동 낙동강변 탈춤공원 축제장에서는 유난히 푸른 가을하늘과 함께 제40회 안동민속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1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마침 '안동의 날' 이기도 하여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축제장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북적대고 있었다.

2시 30분 축제장 동편과 서편에서는 풍물을 잡히면서 700여명의 차전놀이 동채꾼과 머리꾼들이 출장하고 있었다. 일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문화원장의 타진을 시작으로 동군과 서군에서는 대장을 동채에 태우고 서로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며 대치하고, 월사! 덜사! 동채꾼과 머리꾼들의 함성이 수만 관중과 함께 축제장을 뒤흔들었다.

몇 번 하늘높이 치솟은 동채가 맞부딪히면서 싸움은 절정에 달하고, 대장들의 지휘 하에 동채꾼과 머리꾼들이 일사불란하게 밀고 당기면서 대장이 동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좌우로 휘돌아 나가기도 하였다.

드디어 대장 하나가 동채에서 떨어지고, 진편에서는 짚신을 공중으로 던지면서 땅을 치고 이긴 편에서는 대장과 동군들이 축제장을 돌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매년 동군(왕건)이 이겼었는데 올해는 서군(검훤)이 이기는 이변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관중과 함께 어울려 한판 대동놀이를 하면서 차전놀이 공연을 마쳤다.

천년의 놀이, 동채싸움 차전놀이

차전놀이를 일명 동채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그 기원은 천여 년 전 후삼국시대의 놀이로 추정된다.

대동문부군옥(大東韻府群玉),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국사략(東國史略), 동사강목(東史綱目), 동사회강(東史會綱), 동사찬요(東史纂要), 병산전투(瓶山戰鬪), 삼태사공실적(三太師公實蹟), 영가지(永嘉誌) 등 향토사와 고기(古記)에 의하면 몇 가지의 차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왕건이 안동의 병산전투에서 승리한 후 지역민들이 왕건과 검훤의 싸움을 연상시켜 지게처럼 생긴 동채 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 있는 장정을 지휘자(대장)로 태워 동채놀이를 해 왔다는 이야기와, 지역민들이 소금장수와 등짐





장수 지계에 견훤과 왕건을 태워 밀어붙이고 도망가는 모습의 흥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차전놀이는 안동에서 전해오는 민속놀이로써 지역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남성미가 넘치는 대동놀이이다. 또한 나라의 전승을 기념하고, 고장의 평화를 염원하는 상무정신이 깃든 놀이이다. 1608년 조선조 14대 선조왕이 이 놀이의 정신을 가상히 여겨 직접 동부와 서부로 편을 갈라주고 계속 장려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까지 지역민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1922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66년 지역민들이 재현하면서 다시 시작되었고, 이듬해 상비군을 조직,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차전놀이의 발자취, 현재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고, 그해 안동차전놀이보존회가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시범공연을 비롯, 각 학교 운동회와 대학축제, 전국체전, 시민체전 등에 차전놀이 시연을 하는 것이 상례화 되기도 하였다.

안동차전놀이는 많은 국내외 공연으로 그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으로 1999년 정월대보름에 향토사단의 군인들과 차전놀이 상비군 등 1천 2백여 명이 동원되어 시가지지를 행진한 후 시의 중심지인 지금의 우부공원 앞 광장에서 시연하여 시민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2000년 5월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 공인 산업박람회인 HANOVER EXPO2000에 아시아 대표로 초청되어 3백여 명의 차전놀이 시연단이 세계 각국 대통령, 수상, 대사 등 3천여 명이 모인 전야제 자리에서 시연하는 등 10여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공연장면이 전 세계의 위성으로 중계되면서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다.

이후 2002년 재독 한국교포들이 해마다 여는 '다민족축제'에 안동차전놀이를 발표해 1위를 차지했으며, 2003년 한국인이 정착 100주년을 맞은 하와이에서 교포들이 안동차전놀이를 시연해 세계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등 해외에 퍼져있는 교포들도 차전놀이를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민의 날에 안동차전놀이 회원 6백여 명이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차전놀이를 시연하여 서울시민들의 환호를 받은 바도 있다.

차전놀이와 함께 꾸는 꿈, 통일

안동차전놀이보존회는 상비군 250여 명이 있으며 예능보유자 겸 회장인 이재춘 안동문화원장을 비롯하여 두 명의 조교와 아홉 명의 이수자, 그밖에 십여 명의 전수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0년 고 김명한 웅이 차전의 도감을 맡아 일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안동차전놀이를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때는 각종 고종과 연습과정을 실시시켰고, 차전각을 건립하여 차전놀이의 전승·보급에 헌신한 공로로 초대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국민훈장동백장, 인간상록수상, 5·16민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9년 김명한 웅이 별세한 후 인간문화재 후보로 있던 이재춘 현 회장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으면서 안동차전놀이는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재춘 안동문화원장은 차전놀이의 상무정신을 살려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원하는 평양에서의 시연을 위하여 각계 요로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남북의 지도자가 동채를 타고 통일을 외치며 차전놀이를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정광영 안동문화원 사무국장



‘국립농악단’ 출범을 기원하며



평소에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또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문화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농악을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이었다. ‘정악’을 고수하는 이른바 국악은 중국악의 아류에 불과할 뿐이다. 국악단이 아무리 새로운 작곡을 하고 연주하더라도 그것은 고대 중국에서 개발한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라는 오음계를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민요조차도 이 음계의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농악은 이 음계와는 상관없이 가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농악은 농사 마당에서, 어부의 그물질에서, 노동을 독려하고 흥을 돋우어 온 우리 고유의 악이다. 정부는 1970년대 들어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전국에서 대표적인 농악 다섯을 골라 중요무형재 제 11호로 지정했으며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강릉 농악, 이리 농악, 평택농악, 임실 필봉농악이다.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전통기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 전통은 보존도 중요하지만 깨야만 발전이 있다. 문화는 발전해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다섯 개의 농악단의 단원과 그 밖에 농악기능을 보유한 재능 있는 예술인을 뽑아서 국립농악단을 만들면 우리 고유의 악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진다. 국가의 힘으로 우리 고유의 농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농악 발전은 불가능하다. 농악도 시대에 알맞게 진화해야 한다. 국립농악단이 만들어지면 명실상부한 현대 한국악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 현대악은 전래의 판소리와 어울려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우리문화가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국립농악단의 출범을 기원해본다.

중국 요녕성에 올려 퍼진 우리민족의 얼

무순시 신한민속촌에서 전통혼례식 거행





가마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가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마 사진 좀 찍어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 봄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된 김천문화원과 신한민속촌의 인연은 9월24일, 마침내 중국 요녕성 무순시 신한민속촌에서 개최된 전통혼례식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4년부터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김관식(68세)씨는 2006년부터 사비를 들여 신한민속촌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족들을 위한 전통예절교육과 민속놀이 체험 교육을 하고 있었다.

요녕성은 흑룡강성, 길림성과 함께 동북3성으로 불리며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김관식관장은 과거 김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했던 인연으로 김천문화원에서 전통혼례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전통혼례식을 보급하고자 오랜 기간 혼례비품과 절차 등에 대해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첫 혼례식, 김천문화원과 함께

“조선족 중에서 교사출신 노교사회에서 앞으로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전통혼례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는데 첫 혼례식을 김천문화원에서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김관식관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9월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정근재 문화원장님과 필자가 전통혼례 전수를 위한 중국요녕성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3일 09:05분 비행기로 출발해 무순시에서 가장 가까운 심양국제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을 나서니 김관식관장을 비롯한 신한민속촌 관계자들이 반갑게 맞이주었다.

일행은 다음날 있을 행사준비를 위해 신한민속촌으로 향했다. 공항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민속촌으로 가는 도로변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장관이었다. 야트막한 야산에 자리 잡은 신한민속촌은 3동의 체험관 겸 숙소와 원두막, 물레방아, 씨름장, 그네, 장독대, 가마솥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주변에는 한국에서 씨를 구해 심었다는 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을 만끽하고 있었다. 민속촌에서는 그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통혼례식을 위해 목수를 초빙해 가마와 초례상을 제작하고 김천에서 보내준 사진을 바탕으로 천을 구해 가마꾼 복장을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어 내일 전통혼례식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앞으로 혼례식을 이끌어 나갈 조선족 노교사회 회원들과의 좌담회에서 행사일정 등에 대한 좌담의 시간을 가졌다.

송편빚기 대회와 전통혼례식

다음날인 24일, 제2회 송편 빚기 대회 및 제1회 전통혼례식의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민속촌에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요령성 일대의 조선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저마다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흡사 우리네 시골장터를 보는 듯 정겹다.

식전공연으로 심양시아리랑예술단에서 장고춤과 민요 등 축하공연을 했는데 복색과 춤사위, 노래의 억양이 그간의 끊어졌던 교류의 역사를 증거라도 하듯 달라져있었으나 흥에 겨운 미소와 멋스러운 율동은 우리네 시골 감나무집 아들 잔치집이라도 온듯 정겹기만 하다.

신한민속촌과 김천문화원의 업무협약

이어 신한민속촌과 김천문화원이 앞으로 긴밀한 교류와 문화정보를 공유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서가 체결되고 김천문화원 회원들을 중심으로 입지 않는 한복 모으기 운동을 벌여 수집한 35벌의 한복과 갓, 도포, 나무기러기, 목기 등 전통혼례비품에 대한 기증식이 있었다.

전통혼례에 앞서 추석맛이 송편만들기 경연이 열렸는데 심양시와 무순시의 조선족 유치원과 소학교, 중고등학교, 일반부로 나누어 열린 경연이 이루어졌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학생들이 서툴기는 하지만 정성들여 송편을 빚고 만든 송편을 가미술에 넣어 삶은 후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에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이 이역만리 거친 땅에서 오롯이 전승되고 있음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

다채로운 볼거리, 전통 혼례

술집이 붙어있는 송편과 돼지고기 수육, 배추짬으로 점심을 먹은 후 마침내 기다리던 전통혼례식이 시작되었다.

심양시 아리랑예술단의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신랑 황태준 군이 앞장서고 가마를 탄 신부 박면유양이 민속촌마당에 마련된 초례청에 당도하자 정근재문화원장님이 “서지부가사

우차(婿至婦家俟于次)”를 창호하고 신부댁 아버지가 신랑을 초례청으로 인도하면서 혼례식의 막이 올랐다.

신랑이 가지고 온 기러기를 신부댁에 드리는 전안례(奠雁禮)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면하는 교배례(交拜禮),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합근례(合禮) 순으로 시종일관 엄숙하면서도 화기에애하게 이어졌다.

각 의례마다 상세한 의미와 설명을 했는데 특히 기러기는 일생동안 짝을 바꾸지 않고 상하간의 질서를 지키며 삶의 족적을 남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기러기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로서 기러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표주박에 술을 마신 후 거대한 대나무 젓가락으로 안주를 먹기 위해 신랑, 신부가 애를 써는 대목에서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혼례식의 주인공인 황태준, 박명유 부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혼례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부부로서 살다가 이번에 소망하던 예식을 올리게 되었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흥겨운 분위기속에서 혼례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과 축하 뒤풀이가 펼쳐졌는데 민요가락에 따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그 어떤 세월과 공간의 장벽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김천문화원에서 전수한 전통혼례식이 앞으로 신한민속촌 주관으로 계속 이어져 조선족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송기동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평창문화원

평창의 맛, 우리의 맛 | 평창문화원 음식품평회



평창문화원(원장:고창식)에서는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전승사업 “산촌음식으로 풀어보는 할머니 · 할아버지의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마다 도사리 마을회관에서 산촌음식을 직접 재현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가지 산촌음식을 만들며 한국인의 밥상과 6시 내고향, 강원도가 좋다, GTB뉴스 등 음식 알리기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김도연 소설가와 최광호 사진가가 함께 참여해 재현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사진을 찍어 책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특히, 9월 22일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우리음식을 찾자’ 라는 취지로 군관 내 기관 · 단체장 40여명을 도사리 산촌체험관으로 초빙해 10여 가지의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앙케트(설문)로 대표음식을 선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음식을 맛보며 배부된 조사 평가서에 꼼꼼히 기록했다. 10여 가지의 산촌음식 메뉴로는 삼색 손두부, 감자손국수, 평곤드레밥, 감자고로케, 꿀과즐 등을 시식하며 이 평가를 받게 되어 음식문화와 산촌문화가 매치되는 행사로 큰 주목을 끌었으며, 품평회에서 뽑힌 음식으로는 평곤드레밥과 메밀공이국시, 감자고로케가 뽑혔다.

품평회에 참석한 이석래 평창군수는 “평창의 음식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으며, 고창식 평창문화원장은 “지역의 노인들의 삶의 문화와 고유한 산촌음식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지역의 전통향토음식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이호섭의 음악캠프 | 시가 흐르는 저녁



평창문화원(원장 고창식)은 9. 20.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군민들에게 음악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흐르는 저녁, 이호섭의 음악캠프'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다. 이번 음악캠프에는 방송인 겸 작곡가 이호섭 씨의 진행으로 7080가수 유심초가 참가해 '사랑이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 추억의 가요를 통기타 연주와 함께 들려주고, 가수 안다미 씨가 '화살을 쏘고 간 남자', 손동호 씨의 '그날까지' 등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해 음악을 들려주고 평창문화원 사물놀이반과 시 낭송반이 출연해 흥겨운 사물놀이와 시 낭송을 들려주며 가을밤의 정취에 젖어드는 시간을 제공했다.

정은실 평창문화원 직원, 우리문화 객원기자



그림으로 보는

통영

통영항구

벧고동소리가 서피랑과 동피랑에 감싸여 공명이 되어

작은 항구를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통영 항.

한려수도의 한 가운데 자리하여 부산과 여수를

물길로 이어주던 통영 항.

금성 호, 태안 호, 원양 호, 복운 호, 동일 호, 엔젤 호... 등

수많은 여객선이 벧고동을 울리며 내왕 하던 항구.

고속도로와 내륙교통의 발달로

여객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통영 항.

해 뜰 무렵의 통영항구는 거울처럼 맑고 아름답다.

호안(湖岸)에 비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주는 통영 항을

나는 무척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과 희망을 싣고 떠나가고 떠나왔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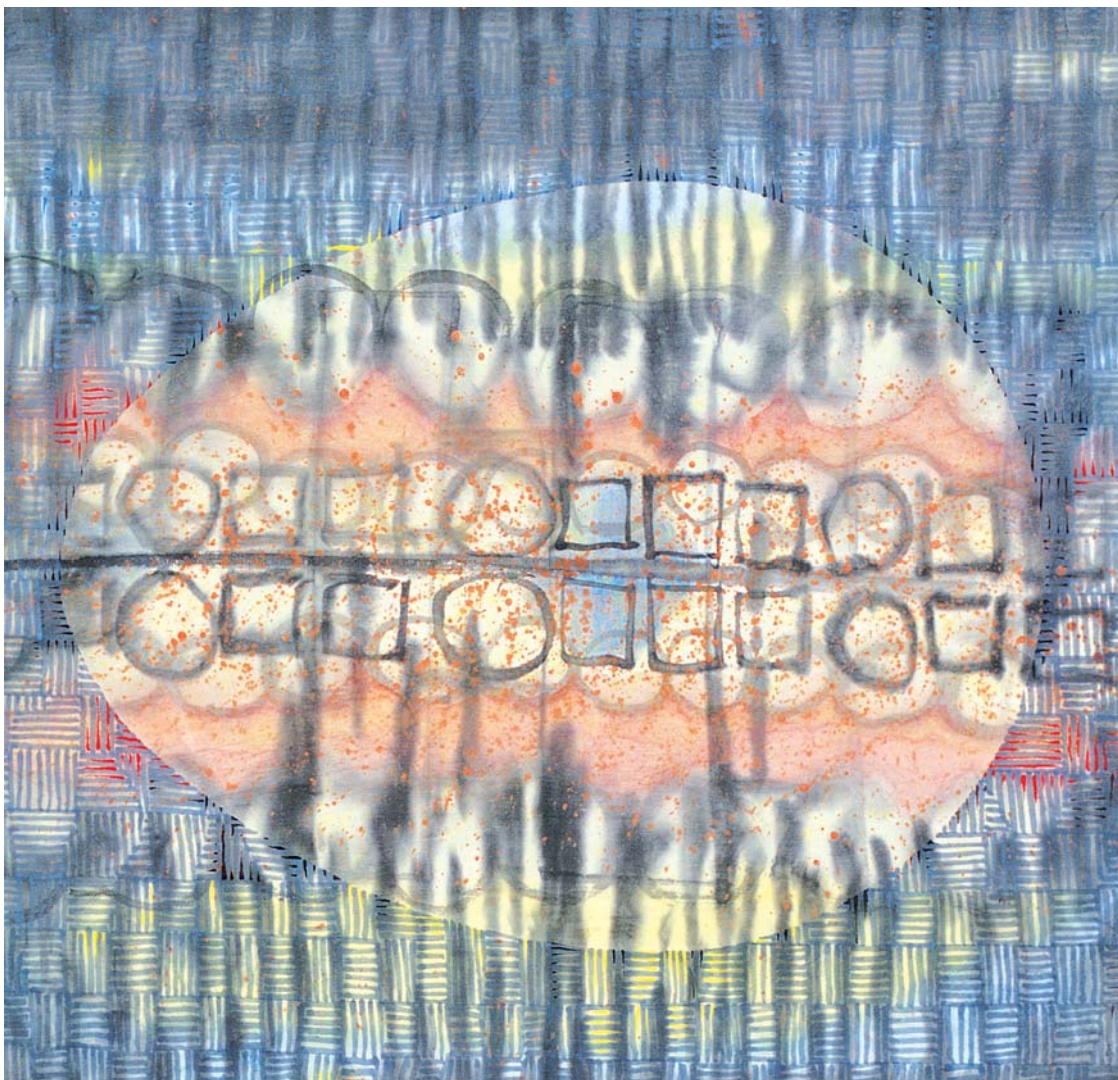
역동적이고 왁자지껄하던 풍경이

아직 내 가슴에 각인 되어 있으나 지금은 조용하고 잔잔한

풍경만 간직 한 채 통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남도 100경전(景展)에 그려 보았다.





해무(海霧)

바닷바람이 끈끈한 습기와 짝조롭힌 갯 내음을 풍겨주는 해변 길을 걷는 맛은 특별한 별미와 같다.
 초여름 장마가 올 때나 장마가 걷힐 무렵, 물안개가 물러와 사방의 시야를 순식간에 가려서 세상에 홀로 인양
 진한 고독을 안겨주어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적막감을 느끼게 한다.
 지척을 알 수 없는 해무는 항해하는 뱃사공을 당황하게 하고 항로를 잃게도 한다.
 경험 많은 항해사는 벼랑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코끝에 묻어오는
 풍란의 향기로 섬을 식별하고 뱃고동 소리로 길을 찾는다고 한다.
 나는 초여름의 바다를 무척 사랑한다. 고회를 넘긴 나이에든 여름이 오면
 물안개 속을 항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글. 그림 통영문화원장 **김안영**



229번째 지방문화원 개원

을숙도문화회관에 사무국
‘지역문화 발굴·콘텐츠화 박차’의 계기

부산 사하문화원 개원
사하지역의 문화를 열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을숙도문화회관 전시관리동 2층에서 사하문화원 개원식이 열렸다.

울 초 설립논의를 거쳐 빠른 속도로 개원에 이르렀다.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김진순 사회복지법인 지원 원장, 장석준 덕화푸드 대표, 강신혁 강동병원장 등의 지역민들이 함께 했고 사하구청도 적극 협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수집·정리하는 문화원의 기본 역할에 더해 각종 문화행사, 문화학교 운영, 문화강연 등 다양한 문화 창조 활동도 펼친다. 또 지역 문화 콘텐츠화와 지역문화정책 연구·개발도 해나가게 된다.

한편, 사하문화원은 2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8월 31일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됐으며 을숙도문화회관 전시관리동 2층에 임시 사무국을 마련했다. 초대 원장은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이 맡았다.

사하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점 역할로 나선 229번째 지방문화원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문화원 돋보이기

경기도지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 경기도, 시와 함께 꿈꾸다 가 지난 10월 18일(화) 17:30~19:00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에서 열렸다. 영화배우 오정해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이근배 시인, 신달자 시인 및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원장 등의 시낭송이 있었다. 축하공연으로 MBC "나는 가수다" 하우스밴드와 신세계 프로젝트 국악퍼포먼스 및 성남시립합창단 등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졌다.

경상남도지회

제3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개최

지난 10월 20일(목) 10시부터 17시까지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내 천년의 광장에서 제3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경상남도지회가 주최하고 합천문화원 주관, 경상남도, 경남도의회, 합천군,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가 후원했다.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행사에 즈음하여 경남을 찾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남지역의 전통농악을 알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놀이문화를 창출하며 각 가정의 특색 있는 농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켜 후세들에게 전하고 농악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 실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경주문화원

일하는 노인전국대회 대상



노인일자리사업 사진촬영봉사사업단은 제5회 일하는 노인전국대회에 참가



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5회째를 맞이하는 일하는 노인전국대회는 보건복지주최로 활동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미래 노인상을 제시하고 1-3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회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9월 21부터 22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시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약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경주문화원 사진촬영봉사사업단은 2008년 사진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 20여명으로 결성되어 디지털카메라 촬영기술과 웹상에서 이미지 활용기술 교육 후 유적지에 파견되어 연간 경주를 찾은 관광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서비스 및 전자메일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찍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새로운 관광문화 창출에 기여는 물론 소외된 계층에 나눔의 실현하여 일하는 노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10월 8일부터 14일 까지 제19차 유엔 관광기구총회(UNWTO) 홍보를 위해 개최되고 있는 태크니컬 투어에 참여하여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봉사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의 맛! 우리의 기막! 신명나는 풍물한마당!!



지난 9월 23일(금)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내 화랑광장에서 제7회 경주시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노동의 고됨과 삶의 애환을 흥으로 승화시킨 민족 고유의 농악을 전승 보존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경주시민으로 구성된 농악단 7개팀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지난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인 인강농협물단의 시연을 시작으로 각각 특색 있는 공연으로 그동안의 뒀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으며, 축하공연으로 가람예술단의 난타공연과 사물놀이가 이어졌다. 특히 난타공연은 신명나는 리듬으로 참가자와 관람객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여 흥겨운 무대를 연출하였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은 신경주농협물단이, 인기상은 경주농협물단이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 수상팀 신경주농협물단에게는 경상북도품물축제에 경주시 대표로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대회에는 시민들을 비롯한 엑스포 관람객 2000여명이 참석하여 소중한 우리의 전통의 생각하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손원조 경주문화원장은 "농악이 오늘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 맥을 이어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것에 대한 참가자들의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오늘 대회가 엑스포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소리를 널리 알리는 훌륭한 축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서구문화원

"가을날 그대들의 특별한 하루" _ 명예교사 정희성 시인 초청 특강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강만)은 제1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2001년 제16회 만해 문학상, 시와시학상 등을 수상한 정희성 시인을 초청하여 독자와 함께 하는 낭독회와 명예교사 문학강연의 자리를 이 가을의 특별한 선물로 마련했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학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3일 빛고을 국악 전수관 제1

회 강연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11월 까지 3회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탈을 꿈꾸지만 늘 제자리걸음인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상처의 치유와 문학의 향기를 전달하는 이번 행사는 문학 강연 외에 남도 민요와 고전무용, 시낭송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 무대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을 간절히 바라며 서로 상처의 치유와 아름다운 세상 그리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잔잔하게 종소리처럼 퍼지는 시인의 육성을 통한 시낭송은 이 가을의 특별한 선물로 관객을 감동시켰다. 특강과 공연 무료로 진행되며 단체 수강은 서구문화원 사무국으로 우선 접수하여 좌석을 배정 받아야 한다. 10월 21일은 드림아트홀에서, 11월 21일은 노대동 건강타운에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특강 참가자에게는 강의 내용을 담은 소시집과 강의안이 무료 배부된다.

꿈꾸는 어른신들의 감성 글쓰기 제1회 서구사랑 실버백일장 성료



지난달 29일 서구 풍암 호수공원에서 60세 이상의 어른신 백여 명이 참가한 제1회 서구사랑 실버백일장이 개최됐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한 디지털 글쓰기가 아닌 현장에서 글제를 받아 감춰둔 글 솜씨를 겨루는 이번 백일장의 대상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이미용(63, 서구 풍암동)씨의 '그집앞'이 선정됐다. 이날의 글제는 그집앞, 어머니, 휴대폰으로 일상에서 어른신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을 옛 추억과 함께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로 엮어냈다. 풍암 공원의 가을 정경과 어루러진 어른신들의 백일장은 잔잔한 종소리처럼 가을 호숫가에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행사가 시작될 무렵 비가 오락가락 하였으나 참가 어른신들의 열기에 비도 잠시 멈추고 옛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른신들의 추억 가득한 글쓰기는 현장 곳곳에서 한 폭의 비단을 짜내듯 문학 소년소녀 시절의 열정을 되살렸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임영록(65, 북구운암동)씨도 '밤잠을 설칠만큼 설레는 행사였다. 야외 백일장은 50년 만의 참가인 것 같다'고 함박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소설가 박신영 씨는 어른신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문학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평했다. 이번 백일장을 주관한 서구문화원 강만 원장은 "백일장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이 60대 후반임을 감안하

면 무르익은 시간 속에 풍화되어 영근 어르신들의 지혜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청문화원

가락국 양왕릉 덕양전 추향대제 헌관 봉행

지난 10월 12일(수) 오전 11시에 덕양전(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에서 가락국 양왕릉 덕양전 추향대제 헌관 봉행이 열렸다. 가락국 10대 구형왕 계화왕후 위패를 봉안한 덕양전 추향대제에 아래와 같이 헌관으로 봉행을 하였다.

초헌관 : 경상남도 김두관 도지사 / 이헌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 / 종헌관 : 산청군 단성향교 이완규 전교

성남문화원

단기 4344년, 제17회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축제' 개최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이 주최하고, 단군성조연합회(회장/이경식)가 주관하는, 단기 4344년 '제17회,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축제', 지난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동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단군성조연합회가 1부 '선익식'을 시작으로 2부 기념식은 태울림 사물놀이패의 길놀이와 한춘섭 문화원장의 경하시 '숫구진 이 나라에! 가 낭송되고, 축하공연으로 소리사랑회의 한국무용 '부채춤', 성남국악협회 회원들이 경기민요 태평가, 뱃노래 등을 선보였다. 3부 '도당굿거리'는 중오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굿 전수조교인 오진수와 이수자 목진호, 단군성조연합회 김옥자 회원 등이 펼치는 '도당굿 문화축제'로 진행됐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장 외 성남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제4회, 성남문화원의 날

-유공 임 · 직원 및 제20회 성남사랑 글짓기 시상-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5시 문화원 3층 강당에서 제4회, 성남문화원의 날 을 진행했다. 이날, 지난 7월 9일 성남시청 야외 분수광장에서 개최됐던, 강정일당 추모 '제20회 성남사랑 글짓기' 시상식

이 진행돼 60명의 수상자들이 총 262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령했다. 한편, 제4회 성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유공 임 · 직원 정낙현 감사에 대한 연합회장, 최만순 부원장 · 박미화 감사의 도지회장 표창이 있었다. 또한, 이날 성남문화원은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부문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연속 3년간 '대한민국 문화원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 더욱 의미 있는 기념식이었다.

제16회 학술회의 '스마트 성남, 도시 만들기' 개최

성남문화원 (원장 한춘섭)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는 지난 10월 25일(화) 오후 2시에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스마트 성남,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16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금년도 학술회의 주제를 <스마트 성남, 도시 만들기>로 정한 것은, 1973년 7월 1일자로 성남시가 승격된 지도 어언 38주년이 되어, 학술적인 연구를 통한 우리 성남의 미래상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학술회의는, 순환일 경기대 연구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기조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우중 부총장이 '살고 싶은 도시, 성남 만들기'를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광정근 성남시청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성남시 주민 중심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최만순 도시계획학 박사가 '성남시 도시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정책 방향 연구', 동서울대 건축과 전봉구 교수가 '성남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서울환경계획연구소 현영조 소장이 '남한산성의 전통적 경관과 고건축(전통건축)에 대해 발표했다. 제2부는 한동익 경기향토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에 송원홍 건축사, 김영상 건축사, 성기용 동서울대 교수, 고종화 한국관광공사 부장,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해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포천문화원

'명성산역새꽃축제' 공연 참가

-문화학교 6개팀 40여명 출연하여 열띤 호응 받아-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 문화학교는 15일 포천시 산정호수 조각공원 특설 무대에서 개최된 '제15회 명성산 역새꽃축제' 행사에서 포천시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등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역새발 그리고 가을호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선보인 포천문화원 문화학교는 우리춤, 민요, 가야금병창, 대금합주, 포천사랑 실버악단 등 40여명이 부채춤, 군밤타령, 경복궁타령, 아월삼경, 내 고향의 봄, 천년학, 엘칸토파사, 장녹수, 한량무, 섬마을선생님, 울고넘는 박달재, 님 등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흥에 겨운 어르신들이 무대 앞에서 함께 춤을 추며 앵콜을 외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날 행사의 참가자들은 포천문화원 문화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한국의 문화예술의 멋들어진 맛을 시민들에게 전파하여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있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전

했다.

포천문화원에서는 가야금 사물놀이, 대금, 민요, 서예, 서각, 한국화, 기타, 하모니카 등 문화예술훈을 시민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문화학교 제 23기를 개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강생을 수시모집 하고 있다. 또한 포천사랑 실버 문화나눔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봉사활동 등 크고 작은 축제에 참여중이다. 포천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및 실버악단 단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포천문화원(532-5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공연 실시

- 포천노인대학 어르신들 대상으로 문화공연 펼쳐 -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 포천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단은 10월 13일 “포천노인대학”에서 문화나눔 봉사공연을 실시했다.

이날 공연에는 포천노인대학 수강생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사랑 실버악단은 님, 사랑이란 두글자, 울고넘는 박달재, 섬마을 선생님, 내 마음 별과같이 등을 하모니카, 기타, 피아노로 연주하였으며, 아월삼경과 내 고향의봄, 아리랑, 노들강변을 가야금 병창으로, 대금독주로 천년학과 장녹수를 연주했다.

또한 문화학교 우리춤반에서는 한량무를 선보이며 이날 모인 어르신들에게 신나는 우리문화를 선사했다.

함안문화원

임원진들 군내 문화유적 답사

9월 26~7일 양일간에 걸쳐 함안문화원(원장 조호래) 임원진 및 연구위원 25명이 함안에 살면서 유적에 대해 체계적 연구와 답사가 없었다며, 군내 문화

유적지 답사에 나섰다.

첫날인 26일은 개인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능가사 칠불탱화 감상과 촬영을 했고, 광활하게 펼쳐지는 낙동강 백사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광심정(廣心亭) 가는 길에 함안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함안출신으로 고려 말 때 3명의 왕을 섬기며 정승을 지낸 윤환(尹栢)을 주향으로 모신 흥포서원과 윤환의 묘역 및 고려동에 대한 전정렬 해설사로부터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둘째 날인 27일은 보물 159호인 방어산 마애불을 제일 먼저 답사했다. 이괄의 난 때 진압에 큰 공을 세운 순천군수 이휴복을 모신 도천재에서 점심으로 김밥을 먹은 후 의상대·원효암으로 갔다. 가는 길에 이상규 이사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원효와 가는 길’ 자작시 낭송도 있었다. 여항면 양천재에서는 『여항산』의 저자 조건부 씨로부터 함안군수 정구와 오형묵이 놀다간 구체적인 흔적과 암각 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틀 동안 촘촘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강행군 하여 일부 원로위원들로부터 애교 섞인 불만을 사기도 했으나, 대체로 유익하고 보람 있는 답사였다는 평이 있었다.

국회 시낭송의 밤

국회 시낭송의 밤

오는 11월 24일(목) 17시 30분부터 제 9회 국회 시낭송의 밤이 국회의 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2011 전국농어업인 두레품물경연대회'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하여 오는 11월 4일(토) 10시부터 남산한옥마을 내 특설무대에서 '2011 전국농어업인 두레품물경연대회'가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주관,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각 고장 고유의 향토색 짙은 품물경연을 통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전국농어업인 두레품물경연대회'는 전문연주자들의 경연이 아닌, 농어업인들이 손수 펼쳐 보이는 국내 유일의 순수 생활국악 경연대회다.

• 문의 : 국악방송 (Tel. 02-300-9920)

2011(제3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행사 열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는 2011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11(제3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이호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유선호 국회의원, 황주홍 강진군수, 김은식 강진군의회 의장,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문화예술인, 전남 22개 지방문화원 원장 및 사무국장, 회원 등 문화가족 1,000 여명이 참석한다.

2011 광주 문화원의 날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는 2011년 11월 9일(수)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2까지 광주광역시 빚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2층)에서 광주 문화원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5개 지방문화원 및 문화가족 등 500여명이 모이는 이번 자리는 광주광역시 5개 지방문화원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이 후원한다.

신임 원장



**울산 북구문화원
박종해**

임기 : 2011.9.21~2015.9.20
성균관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학과 졸업
동부고등학교 교감, 교장 정년퇴임
(전)북구문화원 부원장
(전)울산문인협회장
(전)한국예총 울산광역시 연합회장
(전)처용문화제추진위원장



**경기 의왕문화원
박용일**

임기 : 2011.9.29~2015.9.28
의왕시 약사회장
자유총연맹 의왕시 지부장
경기도의회 의원
의왕 농협 조합장



**충남 서산문화원
이준호 재임**

임기 2011.11.11~2015.11.10
서림복지원 근무
서산문화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제6대 서산문화원장

퇴임 원장



**울산 북구문화원
이병우**

울산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울산처용문화제 추진위원장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장



**경기 의왕문화원
정진우**

경기도민회 감사
대한콘설타트 사장

전국 사무국 동정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정정래

임용 2011.9.1

이천문화원 감사 이선민

임용 2011.10.1

2011
전국농어업인

두루께 풍물경연대회

남산골 한옥마을

2011. 11. 4(금) 10AM-4PM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 우리문화, 우리소리 국악방송 후원 | KFA 한국마사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 행사는 한국마사지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